

# 타워크레인 해체 마무리...24시간 실종자 수색

### 3일만에...와이어보강 완료 조종석·마스터 해체 앞두고 19~21층 지지대·그물 설치 수색전 반응 22·27층 수색 집중



23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상층부 붕괴 위험이 있는 외벽 일부분을 떼내고 있다. 작업 도중에도 콘크리트 잔해물들이 떨어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先) 작업인 타워크레인 해체가 마무리됐다.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은 지난 21일 종료를 목표로 했지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요인들로 인해 3일만인 23일 종료됐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4시간 구조·수색 작업 등 본격적인 실종자 찾기에 나선다.

23일 사고수습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책본부는 지난 21일부터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시작해 27t 무게 추, 55m 붐대, RCS폼(거푸집)을 제거하고 와이어 보강 작업을 완료했다.

대책본부는 지난 21일 타워크레인 해체 완료를 계획했지만, 건물 상부에 설치된 RCS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연결된 부속 자재들이 건물 붕괴로 인해 휘어져 있는 데다 웅벽의 변이 등으로 크레인 제거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해체기로 했던 크레인 조종석과 마스터 상부의 경우 오히려 해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는 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해체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현산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책본부는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으로 이날까지 지상 19~21층 내부에 책서포터(지지대)를 설치하고, 구조대의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 낙하물방지 그물 설치를 완료했다.

타워크레인 해체가 완료됨에 따라 대책본부는 24일부터 소방대원과 현대산업개발 작업자들을 투입, 24시간 구조·수색을 실시한다. 특히 해의 대형재난 현장에 파견돼 구조활동을 했던 전문 구조대원을 24일부터 투입, 24시간 수색·구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특히 수색경이 반응을 보인 지상 22층과 27층 수색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당국은 현대산업개발의 도움을

받아 지난 21일부터 지상 22층과 27층의 콘크리트 잔재물을 깨고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 중에 있다.

문희준 서부소방서장은 “22층과 27층에서 수색경이 반응을 보인 만큼, 실종자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수색경과 구조대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성우 HDC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장은 “22층에 콘크리트 잔재물을 제거할 야간 투입조

(근로자 8명·관리자 2명) 10명을 우선 투입, 24일부터 24시간 주·야간 교대로 운영을 해서 소방대원의 구조활동을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문 구조대원을 추가 동원하는 ‘전국 소방력 동원령’을 지난 21일 발령했다. 이를 위해 해외 대형재난 현장에 파견돼 구조활동을 했던 배태량 전문 구조대원 14명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현장에 동원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동강대 올 등록금 동결 2014년부터 8년째

동강대학교도 등록금 동결 대열에 합류했다. 동강대는 최근 교직원, 학생 대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동강대는 지난 2009학년도부터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 오고 있다.

2009~2011학년도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한 동강대는 2012학년도에 5.02%를 인하했다. 동강대는 다음해인 2013학년도에 등록금을 동결하고 2014학년도 0.4% 인하 뒤 올해까지 8년째 동결이다.

동강대 이민숙 총장은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 참여와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보,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의 사명으로 여기고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비만 예방·건강증진사업 광주 북구 2개 분야 ‘우수’

광주시 북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1년 비만예방사업’과 ‘2021년 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북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등 유형별 맞춤형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과 건강증진사업을 펼쳤다.

비만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만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노르딕워킹 걷기교육’과 ‘걷기지도자 동아리’를 신규로 구성·운영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적극 찾아 관리하고 모집 시 개별 예약접수 받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 주민 건강관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

# 광주시,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중대재해 사고 예방·책임자 엄벌 중점”

### 25~26일 백화점 등 중점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를 줄이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25~26일 이틀간 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완구·인형·문구류 등 어린이 선물제품, 건강기능식품·주류 등 어버이 선물제품, 기타 화장품·잡화류 등 선물제품이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를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제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인규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다”면서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등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노동부·검경, 범시행 앞두고 회의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정식 시행을 앞두고 관계 수사기관들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 책임자 엄벌을 중점 목표로 삼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 21일 대검찰청에서 ‘수사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 구축과 중대재해 예방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중대산업재해(산재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는 전국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가 전담 수사를 하고,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로나 제조물, 공중이

용시설·공공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결합으로 생긴 사고)는 시·도 경찰청이 수사를 맡는다. 검찰은 각 사건 책임자를 기소해 처벌이 이뤄지게 한다.

세 기관은 우선 산업 현장 단속과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작업자들에게 안전대(life-line) 같은 장비를 제공해 착용하게 하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부터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대검·경찰청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 책임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죄에 상응한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기관은 중대재해 사건에서 원인을 규명할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법령과 산업 기술이 복잡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단계적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초동 단계부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연합뉴스

## 중대재해법 학교장 설명회

###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청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급급 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다.

지난 20일 광주교육연구원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사립학교 교장 75명, 공립학교 교장 256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김환식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학교 교육과 안전이 중요하다”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남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 “재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예방 활동은 결국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리·감독자의 안전 역량과 전문성이 교직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국민은행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